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 분석¹⁾

이민아*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for the lively use of activity areas in the elderly nursing facilities

Min-Ah Lee*

School of Human Ecology, Kunsan National Univ.

1. 서론

Weisman(1981)은 환경-행동이론(Environment-Behavior Theory)에서 시설 거주노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정 공간의 환경적 속성은 세 가지 하위체계 즉, 정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 물리적 환경특성과 그 구성요소, 그리고 개인거주자의 특성 및 행동교섭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Weisman의 이론을 응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정책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주자 관리통제 특성과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시설의 거주노인 특성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다양한 요인별로 적합한 활동공간 계획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008년 1월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설립하였고,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시설이 고루 포함되면서, 층별로 활동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시설 중 연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10개의 시설을 선정하였다. 시설장 혹은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거주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수집하였고, 직원을 대상으로 거주자 관리통제와 활동공간 이용 관련 사항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거주자 관리통제 사항은 Smith & Holland(1982)와 Pinet(1995)의 “Resident management practices scale”을 참조하여 융통성, 개별화, 인간존중의 범주를 평가하는 26개 문항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활동공간 이용은 평균, 최대 이용인원, 주요용도 등을 조사하였고, 답사를 통해 각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인 공간형태와 면적, 개방성, 접근성, 중심성, 자극요소를 알아보았다.

3. 조사결과

3.1 활동공간별 이용비율

공적 활동공간은 공간을 보유한 8개 시설 중 5개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3개 시설은 공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평균 이용비율은 F시설이 40.0%로 가장 높았고, 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시설의 평균 이용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B시설 6.9%, D시설 6.3%). 준공적 활동공간을 보유한 7개 시설 중 A와 F시설이 주로 공식적인 성격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목적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평균 이용비율은 C와 I시설이 50%를 넘었고, 공식적인 성격을 띤 A, F시설의 이용비율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준사적 활동공간을 보유한 7개 시설의 주용도는 대부분 구경과 휴식이었고, 개인 활동(B, C H) 혹은 대화(C, D, E, G)의 기능도 있었다(표 1 참조).

3.2 노인특성, 거주자 관리통제와 공간이용

와상이나 휠체어 이용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은 공적, 혹은 준공적 활동공간 중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연계형 공간구성을 가진 시설의 활동공간은 이용이 활발했던 반면, 구획형 시설은 거주실 앞 준사적 활동공간의 이용만 활발했을 뿐 거리가 멀고 한쪽에 고립되어 있는 공적 활동공간의 이용이 드물었고, 주로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시설의 통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의 공적 활동 공간 이용이 평균 30% 이상으로 많았다.

1)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1-C00300)

<표 1> 시설별 활동공간 이용 및 주용도

	공적 활동공간			준공적 활동공간		준사적 활동공간	
	이용비율(%)		주용도	이용비율(%)	주용도	이용*	주용도
	평균	최대					
A	16.0	60.0	다목적	16.0	공식	×	구경, 휴식
B	6.9	55.6	공식	35.0	다목적	○	구경, 휴식, 개인활동
C	-			53.6	다목적	○	구경, 휴식, 개인활동, 대화
D	6.3	39.1	공식	35.0	다목적	○	구경, 휴식, 대화
E	18.0	24.0	공식	-	-	○	구경, 휴식, 대화
F	40.0	62.0	다목적	15.0	공식	-	-
G	-			30.0	다목적	○	구경, 휴식, 대화
H	18.5	55.6	다목적	-	-	×	휴식, 개인활동
I	23.3	100.0	다목적	53.3	다목적	-	-
J	30.0	66.7	다목적	-	-	-	-

* 이용이 많음(○), 적음 혹은 없음(×)

3.3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공간이용

공적 활동공간에서 활동공간의 형태가 홀인 경우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었다. 정원이 200명 이상이고 한 층에 4개의 거주단위를 가진 시설은 거주실로부터의 접근성과 중심성이 떨어져 공간의 성격이 공식성을 띠었고 높은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용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평균 이용비율 측면에서 활동공간의 1인당 면적이 3㎡내외로 충분하고 접근성과 중심성이 좋으며 자극요소가 많을수록, 특히, 가구배치의 형태가 분산 배치, 혹은 ㄱ자, ㄷ자 배치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준공적 활동공간의 이용은 공간의 형태, 1인당 면적, 접근성, 자극요소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 용도가 공식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공간은 1㎡가 안 되는 좁은 1인당 면적, 혼잡한 입식형태의 가구배치, 독립형태의 불리한 공간형태와 함께, 낮은 개방성과 접근성, 중심성에 의해 낮은 이용비율을 보였다.

준사적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는 다양한 공간구성, 각 거주단위나 거주실 바로 앞에 위치하는 접근성, 거주단위의 입구에 위치하여 공적공간의 구경/관찰을 용이성, ㄱ자 소파배치나 테이블 등 가구배치 등 이었다. 고립된 형태의 준사적 활동공간은 개인 활동을 보조하는 충분한 설비와 가구의 배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각 거주단위 안쪽보다는 거주실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되 그 장소성과 영역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노인요양시설의 활동공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시설의 정원이 대규모이고 층별 거주인원이 많은 경우, 활동공간은 다양하게 분산시키고, 공적 활동공간은 시설의 중심에 위치시키되 접근성과 개방성을 함께 고려한다. 와상이나 휠체어 노인이 많은 시설의 활동공간들은 집중 혹은 연계하여 노인의 이동이 잦아지지 않도록 한다.

둘째, 활동공간의 자율적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낮은 관리통계는 거실 형태의 준공적 활동공간이다.

셋째, 공적 활동공간의 형태가 홀이고, 1인당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공간의 중심성이 좋을수록 다목적으로 이용되며, 이와 함께 접근성과 개방성이 좋고 가구배치의 형태가 상호작용에 유리한 배치일수록 이용비율이 높아진다. 준공적 활동공간은 전체적으로 공간의 유형과 공식성, 1인당 면적, 접근성, 자극요소, 이용비율 등이 상호 영향을 주며, 준사적 활동공간의 성공요인은 다양한 공간구성과 접근성, 상호작용에 유리한 가구배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 고 문 헌

- Pinet, C.(1995). *Nursing home design: Characteristics of social spaces and social behavior of resi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Smith, M.K. & Holland, T.P.(1982). Measurement of institutional resident management practic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6(1), 17-30.
- Weisman, G.(1981). Modeling environment-behavior systems: A brief note. *Journal of Man-Environment Relations*, 1(2), 32-41.